

소비자원 ‘고분자 흡수체’ 빼도 생리대 흡수성능 ‘양호’

소비자 선호 10개 제품 시험 결과 흡수시간·역류량 등 유사 수준 부착·제거 용이성 등 제품별 차이

여성 생리대에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도 흡수 성능이 양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흡수시간과 역류량 등 흡수성능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생리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13일 밝혔다.

고분자 흡수체(SAP, 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무게의 수십 배가 넘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합성 물질로, 높은 흡수력이 필요한 기저귀나 제습제 등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생리대의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높아지면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의 흡수성능, 소비자 만족도, 안전성, 환경성 등을 조사한 결과 흡수시간, 역류량 등 흡수성능은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생리대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원이 조사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는 ‘건강한 순수한면(깨끗한나라)’, ‘내추럴코튼 리올가닉(내추럴코리아)’, ‘본네이처(제이투엘에프에이)’, ‘시크릿데이 포네이처

(중원주식회사)’, ‘쏘피유기농 100% 순면커버(엘지유니잠주식회사)’, ‘좋은느낌유기농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템포 내추럴순면패드(동아제약)’,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주식회사에이씨코리아)’, ‘라네이처 시그니처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라엘 센서티브(라엘코리아) 등 1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상위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흡수시간은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제품이 3mL, 5mL 조건 모두 가장 빨랐다. 역류량은 ‘쏘피유기농 100% 순면커버’,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 ‘라엘 센서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리혈이 생리대 표면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하는지 확인하는 순간흡수는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좋은느낌유기농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 제품을 뺀 9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내추럴코튼 리올가닉’,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라엘 센서티브’ 3개 제품의 경우 통기성 방수층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리대를 써벌마네킨(사람 체온과 유사한 35℃를 유지하는 특수 마

네킨)에 착용시키고 약 3시간 후 내부 습도를 측정했을 때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했다.

촉감, 부착·제거 용이성 등 만족도는 제품별 차이를 보였다.

여성 100명에게 생리대를 직접 사용해 본 만족도 조사에서는, 촉감의 경우 ‘시크릿데이 포네이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건강한 순수한면’은 속옷에 생리대를 부착하는 부착 용이성과 떼어내는 제거 용이성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쏘피유기농 100% 순면커버’가 가장 높았다.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0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의약외품 고시에서 정한 흡수량, 강도 등 품질과 안전성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개당 가격은 ‘건강한 순수한면’이 16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라엘 센서티브’가 58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팰리세이드 등 3개 SUV차종, 배출가스 기준 초과 ‘리콜’

지프 레니게이드·볼보 XC60 등 팰리세이드 5만대 포함 총 5.7만대 허용치 넘어... 일정 제작사 개별 안내

환경부가 13일 3개 SUV차종(국산 1·수입2)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의 이유로 각 제조회사에 결함시정(리콜)을 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차종은 현대 팰리세이드 2.2디젤AWD와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 D5AWD 모델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보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매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팰리세이드 2.2디젤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를 비롯해 질소산화물(NOx), 비메탄계유기가스(NMOG) 등 3개 항목에서 초과했다.

환경부는 오는 14일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각각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XC60 D5AWD는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

x) 등 2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조사인 볼보자동차가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없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디젤AWD가 5만 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지프 레니게이드 2.4가 4000대(2015년 9월~2019년 12월), XC60 D5AWD가 3000대(2018년 4월~2020년 8월)로 리콜 대상은 총 5만7000대다.

환경부는 “이는 잠정 수치이며 정확한 리콜 규모는 결함시정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조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2020년과 2021~2022년 검사에서는 각각 2개사가 리콜명령을 받은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울시내 대형마트 채소코너에서 한 소비자가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추석 농식품 수급안정 최대 ‘40~50%’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기에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늘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평시대비 1.6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9000톤 성수품 공급,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알뜰 소비 정보 제공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 강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배추·무 등 농산물을 비롯 소·돼지·계란 등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 등 14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올해 작황이 좋지 않은 사과와 배의 경우 농협 계약물량 공급을 작년보다 2000톤 이상 확대하는 한편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 실속선물세트 공급물량을 6만개에서 8만개로 늘렸다.

박 실장은 “지난 11일 현재 성수품 공급물량은 3만2000톤으로 계획물량 대비 125% 증가시켰다”며 “정부할인 지원(20~30%) 포함, 시중보다 최대 40~50% 가격을 내린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고용정보원, 군장병 미래직업 ‘VR체험관’ 韓, 아프리카대륙 녹색성장 지원 ‘박차’

구인기업·유관기관 70여 곳 참여

한국고용정보원이 13일 경기 고양킨텍스에서 개막한 ‘2023년 하반기 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고용정보원은 “군인들이 가상현실(VR)로 미래직업을 체험하고 청년정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방전직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군장병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인기업 및 유관기관 70여 곳이 참여한다.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에서는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볼 수 있다. 또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제



/한국고용정보원

공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소개한다. 취업·진로 고민을 전문 컨설턴트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개막식 테이프커팅식에 참석해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군장병에게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체험관을 마련했다”며 “전역 후 진로·취업 고민에 해법을 찾아주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협약 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오는 14일 부산에 위치한 아난티힐튼호텔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3일 기술원에 따르면 양측은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의 부산 개최(12~15일)를 계기로 협약을 맺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OAFEC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경제협력력을 위해 지난 2006년 출범한 협력기구이다. 7차 장관급 KOAFEC는 코로나19로 연기된 바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게 된다. 또 이들의 녹색기반사업 개발과 한국형 사업모델 적용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술원은 “지능형(스마트) 물관리와

폐기물 자원화, 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수소 등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기술과 경험이 아프리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약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은 5대 다자개발은행과 녹색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으로 기록된다. 나머지 4곳은 세계은행(WBG)과,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EBI)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원은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서 16건의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 기술, 경험이 기후위기에 맞서야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